간화선 세계화 불교 도약 기대

진제 대종사 종정 추대 소식에 불교단체 잇따라 논평 발표

진제 스님의 제13대 종정 추대 후 불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12월 14일 발표한 환영논평에서 한국불교가 최근 '자성과 쇄신'을 외치며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정예하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당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논평에서 "종단은 안으로는 청정함을 견지하고 밖으로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시기에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통해 종단의 과제를 원만히 헤쳐가고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도 15일 논평을 발표하고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를 환영했다.

대불청은 "1700여 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진제 대종사의 원로회의 만장일치를 추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특히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 수락 법어를 종단이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진제 스님은 종정직 수락 법어에서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만장일치 추대 결정을 한 원로회의 뜻과 진제대종사의 추대 수락 법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실천으로 한국불교계의 허리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만초)는 종정예하의 정법을 위한 종단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청정승가는 논평에서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문화를 척결해야 한다. 종경예경실과 결사본부의 갈등은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의 대표적 사례다. 예경실이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종정예하를 종도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성과 쇄신 결사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살릴 것은 살리는 대안들이 실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또 종단 변화를 위해 ▷중앙종회 계파모임 해산 ▷총무원장 직선제 ▷포교원과 교육원 역량 강화 및 총무원의 행정 전담 ▷계율 준수 및 승가전통에 위배되는 사안 척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새로운 종정예하께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로 진정한 자성과 쇄신의 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종회와 총무원, 종정 예경실 등 종단의 주요 기구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자성과 쇄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추대된 진제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앞에 헌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추대 결의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인례로 진제 대종사를 조계사 대웅전에 모시고 종정 추대 고불의식을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나의 참모습' 물으면 뭐라 답할건가

다시 보는 진제 스님 법어

바른 수행을 하려면 바른 안목을 가진 스승을 만나야 한다. 지금까지도 분별없이 살아 왔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결론을 봐야 한다. (201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폴 니터 교수와의 종교평화 대화)

수행을 하면 세상과 산사의 생활이 둘이 아니다. 대도를 깨달으면 모든 중생의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리의 낙을 누리는 법이다. 꿈을 깨면 세상사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된다. (201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폴 니터 교수와의 종교평화 대화)

개개인이 세계평화를 갈구할진데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화두를 의심하고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고 온 세상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행하지 않고서 세계평화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201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폴 니터 교수와의 종교평화 대화)

화두가 밤낮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천지가 의심천지가 되면,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됨이니, 이로써 한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국토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 법회)

'참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깨닫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무애자재(無碍自在)하게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종교와 정치제도,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인류의 희망이 '참나'를 깨닫는 데 있고, 미래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 법회)

이번 생에 화두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인류가 생활 속에 꾸준히 참선수행을 닦아 행한다면 마음에 모든 분별과 시비,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히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죽음에 다다라서도 맑은 마음 밝은 정신으로 이 몸뚱이를 옷을 갈아입듯 벗게 되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법회)

"나의 참모습은 과거 모든 성인도 보지 못하고 모든 도인도 보지 못하나니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라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는가 (2011년 9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간화선 평화법회)

"선(禪)은 지혜의 보배 칼을 완성해 단칼에 다생(多生)의 무명초(無明草)를 베어 없애는 것" (2005년 5월 범어사 설선대법회)



진제 스님(사진 좌)이 2010년 12월 31일 세계적인 종교학자 폴 니터 교수(사진 우)와 '종교간 평화'를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조계종 역대종정

제1대 효봉 대종사	제7대 성철 대종사
제2대 청담 대종사	제8대 서암 대종사
제3대 고암 대종사	제9대 월하 대종사
제4대 고암 대종사	제10대 혜암 대종사
제5대 서옹 대종사	제11대 법전 대종사
제6대 성철 대종사	제12대 법전 대종사

종정 수락 법어

우리 종단의 원로대덕(元老大德) 큰스님들과 이만여 법려(法侶), 그리고 사부대중(四部大衆) 여러분의 여망으로 종정으로 추대해 주신 데 대해, 산승(山僧)은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전등(傳燈)·승계(承繼)하는 데 불석신명(不惜身命)으로 막중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國民)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불제자(佛弟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 주체는 정신(精神)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物質)이 정신(精神)을 지배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치관이 전도되어 지구상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점점 혼탁해가고 있습니다. 물질(物質)은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精神世界)의 절대적 가치는 영겁(永劫)으로 수용(收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 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 정신사(精神史)의 향도자(嚮導者) 역할(役割)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국민(國民)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불제자(佛弟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안의 대자유(大自由)와 밝은 지혜(智慧)를 얻을 때, 남과 더불어 참다운 평화를 이루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 각자 자기의 직분에 성실한 가운데 '마음 닦는 수행(修行)'을 생활화 합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이념을 넘어 종교를 초월한, 우리 인류정신문화의 정수인 이 선법(禪法)을 수행(修行)한다면, 모두가 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음으로써 인간의 본성(本性)과 우주만유(宇宙萬有)의 진리(眞理)를 자각(自覺)하여 피안(彼岸)과 하늘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차별과 고통, 고뇌와 갈등이 없는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성취하여 나고 날 적마다 큰 지혜(智慧)와 복덕(福德)을 갖추어 만인(萬人)에게 행복(幸福)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지여우인막측(大智如愚人莫測)이요
수래방거역비구(收來放去亦非拘)로다.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요
진리의 전을 거두고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

불기 2555년 12월14일
진제 합장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살아숨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2012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입학자격** _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2011년 가을 수계자까지)
◐**모집인원** _ 사미니과 00명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_ 1)입학원서(운문사 승가대학 종무소 및 운문사 홈페이지)
2)은사스님 추천서
3)본인 사미니증(승려증)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및 최종학력 증명서
◐**준 비 물** _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1년 12월 28일(음력 12월 4일)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_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_ 2012년 1월 1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명성 · 주지 일진

2012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및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2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특 전** _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승가대학원령에 의거해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불교 국가 해외 연수
◐**모집인원** _ 00명
◐**제출서류** _ 1)입학원서(운문사 승가대학 종무소 및 운문사 홈페이지)
2)수행이력서
3)은사스님 추천서
4)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전형일시** _ 2012년 1월 1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승가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흥륜

문의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팩스 372-0359 www.unmunsa.or.kr
교통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